

2021 한국문학과종교학회 겨울 전국학술대회

뉴노멀 시대의 문학과 종교

한국문학과종교학회에서 “뉴노멀 시대의 문학과 종교”라는 주제로 2021년 겨울 전국학술대회를 개최합니다. 1월 14일, 서울대학교에서 개최식과 기조강연을 진행하며, 이후 온라인 공간에서 비대면 방식의 학술대회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이제 인류는 ‘완전히 다른 세상’에 살게 되었습니다. 문학과 종교를 연구하는 우리들은 ‘지나간 세계’와 ‘오늘의 위기’에 대해,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다른 세상’의 ‘새로운 정상성’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옛 유물처럼 여겨지던 종교가 전혀 새로운 삶의 장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그리고 실용적인 언어에 조금씩 밀려나고 있던 문학이 다른 세상에서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에 대해 함께 답변을 모색할 때입니다. 그래서 이번 겨울 전국학술대회에서는 “뉴노멀 시대의 문학과 종교”에 대한 다양한 사유들을 한 데 모아보고자 합니다. 문학과 종교를 비롯한 여러 학문 분야 연구자 선생님들의 참여를 기대합니다. 주제발표는 물론 자유주제 발표의 신청도 환영합니다.

한국문학과종교학회 임원진 올림

- ◆ 기조강연: 유명순 교수 (서울대 보건대학원)
 김헌 교수 (서울대 인문학연구원)
- ◆ 일시: 2021년 1월 14일(목) 10:00 ~ 17:30
- ◆ 장소: 서울대학교 인문신양관(4동), 온라인(Zoom) 동시 진행
- ◆ 주최: 한국문학과종교학회
- ◆ 주관: 한국문학과종교학회, 서울대학교 종교문제연구소

◆ 학술대회 일정표

일정	시간	분과 및 사회	내용
등록	10:00~10:20		등록 및 Zoom 조정
개회식	10:20~10:30 (10분)		개회사: 유요한 회장(서울대)
기조강연	10:30~12:00 (90분)	사회: 송인화 (한세대)	코로나 바이러스와 인간 숙주, 그리고 한국 사회: 코로나19 팬데믹 1년의 경험과 함의 강연: 유명순 교수(서울대 보건대학원)
			대규모 역병의 서사-그리스 로마 문학의 사례 강연: 김현 교수(서울대 인문학연구원)
휴식	12:00~13:20 (80분)		
제1세션	13:20~15:20 (120분)	1분과 (영문학 1) 사회: 박소진 (숙명여대)	노이만의 위대한 어머니 이론으로 읽는 길면의 『허랜드』: '사랑의 신'의 양면성 발표: 박선화(건국대) / 토론: 한미야(총신대)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 타나난 샤머니즘 고찰 발표: 강준수(안양대) / 토론: 정신희(한남대)
			Living in the New Normal – Re-communicating Core Values and Resiliency in a Changing World 발표: Dary E. Dacanay(St.Patrick School of Quezon City) / 토론: 김치현(서강대)
		2분과 (종교/철학) 사회: 이재환 (가천대)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한국 개신교의 대응 유형 연구 발표: 김민아(인천대) / 토론: 김재명(건양대)
			비대면(untact)의 현실존재론 - 낯설고도 익숙한 또는 익숙하고도 낯선 접촉에 관하여 발표: 이성근(서울대) / 토론: 이재환(가천대)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현실 속에서 살아가기 - '오래된 미래'로서의 뉴노멀 시대 문학과 종교가 갖는 의미를 중심으로 발표: 김민철(연세대) / 토론: 김영원(서울대)
			서양의 세계 종교 입문서는 어떻게 동양을 배제했는가 발표: 최명훈(서울대) / 토론: 최연정(서울대)

휴식	15:20~15:30 (10분)		
제2세션	15:30~17:30 (120분)	1분과 (영문학 2) 사회: 박소진 (숙명여대)	<p>토니 케이드 뱀버러의 『소금 먹는 사람들』에 나타난 여성주의 연구 발표: 안유진(충남대) / 토론: 김현주(중원대)</p>
			<p>소로우의 『월든』과 법정의 『무소유』, 그리고 생명존중 발표: 박종무(호원대) / 토론: 천경호(용문상담심리대학원)</p>
			<p>『버너 시스터즈』에 나타난 여성에 대한 혐오 연구 발표: 정신희(한남대) / 토론: 윤수현(경상대)</p>
			<p>파라켈수스의 팬데믹 치료법 발표: 차영선 / 토론: 김민아(서울대)</p>
		2분과 (국문학) 사회: 최선경 (가톨릭대)	<p>가톨릭 여성 작가들이 보는 낙태: 박완서, 공지영, 소노 아야코를 중심으로 발표: 양혜원(이화여대) / 토론: 김미경(상명대)</p>
			<p>뉴노멀 시대, 한국시의 새로운 모색: 세인의 언어를 넘어 존재의 진리의 언어로 - 2000년대 전위시인 김경주의 시를 중심으로 발표: 오주리(가톨릭관동대) / 토론: 이현정(숙명여대)</p>
			<p>문학 속 재난과 샤머니즘적 인식 - 박경리와 김동리 작품의 비교를 중심으로 발표: 박상민(강남대) / 토론: 조윤아(가톨릭대)</p>
			<p>김탁환의 <살아야겠다> 연구 발표: 홍주영(공군사관학교) / 토론: 이병주(공군사관학교)</p>